

중공의 한방 진흥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정 경근

1. 배경

중공에서는 한방을 중의(中醫)라고 부른다. 이 중의는 전혀 빛을 보지 못하다가 모택동 정권이 들어서면서 재건하기 시작하여, 그들의 말로는 30여년 역사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근자에 오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1983년도에 중공 헌법에 중의 발전 정책을 명문화 했으며, 1985년 2월에는 이 조문을 수정 서의(西醫)와 중의의 비중을 동일하게 명문화 하고 어느 한쪽의 발전을 위해 타를 희생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있다.

4) 그들의 중의 발전계획은 제7차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정도로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다.

이 국가 발전계획에 따라, 한의과 대학 증설 석사박사과정 증설, 기존 종합병원 내에 한방증설, 서의에 대한 중의교육 보강, 각종 생약제 개발 및 중의 임상연구 실시 등 엄청난 예산을 국책으로 투입하고 있다.

3) 1986년에는 위생부에 속해있던 중의 부분을 독립시켜 헌법 정신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4) 중국 중의 연구원의 원장을 장관급 으로 상향조정, 엄청난 예산, 엄청난 조직, 엄청난 인력, 방대한 연구사업과 교육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원 에는 14개 임상 및 기초연구 부에, 76개 연구과, 310명의 교수급 연구진(중의 과학자), 424명의 전문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300여개의 임상 및 기초연구 사업을 완수 하였다. 1986년도 중 연구원의 연구비추경예산 만도 약 5천만불(그 당시 한화로 약400억원)이었다 하니 연간 연구비 총액이 얼마인지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2. 현황

1) 교육제도는 5년제 로서 27개 한의과 대학, 21개 대학원급, 전국 46개 한방연구원이 산재 하며, 대학과정 총 3,900시간 중 3분지 2는 강의, 3분지 1은 임상실습 으로 짜여져 있다. 전체 교과과정 중 3분지 1은 서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 과정 중 150종류의 한방약품 과 약 100종의 질환을 배운다.

2) 국가시험 이나 면허제도는 따로 없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한다.

3) 서의와 중의의 대우상 아무 차별이 없다.

4) 기성 양의는 한방보수 교육을 한방교육기관, 또는 통신교육을 통해
서받고 있다.

5) 한의과 대학 규모는 1,500명~2,000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어서 연간 25,237명의 한방의사를 배출 한다고 한다.

6) 서의와 중의의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3. 정책 목표

1) No cost: 교육비, 시설비, 장비비가 엄청나게 드는 서의는
국민보건에 제한적 공헌밖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의료
비를 국가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돈 안드는 의료(No cost)를
표방, 침, 뜸, 지압, 기요법, 생약제 개발 등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2) Non-drug: 서양의 약품이 가지는 약점, 즉 약화를 예방,
Non-drug를 표방하고 있다.

3) Fast Effect: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양의는 하나의
효과와 더불어 수반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중의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 중의연구의 과학화를 표방하고 있다. 중의 체질학설 확립에 힘
을 기울이는 한편 임상, 기초, 약리 등 모든 연구에 현대 과학기기를
동원해서 Life-science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6) 21세기 세계인의 건강을 중의가 책임지고, 세계 의학의 무역과
치료를 중의로 석권 하려는 것이 중공 한방정책의 궁극적 목표이며,
WHO가 표방하는 Health for all by 2,000는 중의
만이 가능 하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다.

4. 치료 및 연구사업

몇개의 슬라이드 에서 그 예를 보기로 한다.